

월요논단



김 봉 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 겸임교수

수업 설명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 같은 문제 앞에 오래 머물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상황을 따라가는 데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생활 규칙 역시 여러 번 반복해야 익히지만 겉으로는 또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아이들이 자주 듣는 말은 ‘조금 더 노력해라’이다.

이들은 경계선지능 아동이라 불린다. 지적장애 기준에는 이르지 않지만 학습과 의사소통,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다. 아이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경계선지능만으로 장애등록이나 특수교육 대상이

느린 아이가 제도 밖에 서지 않도록

되지는 않아 지원에서 비켜나기 쉽다. 그 시기를 놓치면 학습에 자신감을 잃을 수 있으며, 성인이 된 뒤에는 취업이나 돈 관리처럼 혼자 판단해야 하는 일에서 어려움이 커지기도 한다.

제주에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검사·치료비 지원과 일대일 학습지원 사업이 마련돼 있다. 다만 사업별로 신청과 선정을 거쳐야 해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닿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24년 제주지역 조사에서도 보호자들은 비용 부담과 프로그램 부족을 호소했다.

경계선지능 전용 제도는 아니지만 영국의 교육·건강·돌봄계획(EHC)은 참고할 만하다. 학교의 지원만으로 부족하면 부모나 학교가 필요평가를 요청하고, 의무교육 명령을 지닌 당사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계획을

세우면 이를 매년 검토하고, 교육·훈련이 계속 필요할 경우 최대 25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진단명보다 실제 어려움을 먼저 보고, 졸업 뒤에도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우리도 연결의 틀은 갖추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올해 들어진 학습·복지·상담·진로 지원을 학생 중심으로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시행했고, 제주에서도 통합지원센터가 사례회의와 지역기관 연계를 맡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 기관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마련된 체계가 필요한 아이에게 제대로 닿고 다음 단계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먼저 들어다볼 것은 경계선지능 학생이 통합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지, 교사가 알아챌 어려움이 전문평가와 학습·정서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다. 성적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친구 관계나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기에 이 부분 또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생활과 가족의 부담까지 함께 살피고, 진학하면 다음 학교가, 졸업하면 진로·고용기관이 필요한 지원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끝까지 챙길 담당자도 필요하다.

아이를 지능지수 한 줄로 판단하지 않고, 저마다 지닌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경계선지능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배려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다.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배우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며, 성인이 된 뒤 자기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꾸준한 지원이다. 조금 늦게 배운다는 이유로 배움과 자립의 기회까지 늦어져서는 안 된다. 아이와 가족이 지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사설

학교폭력 피해 증가, 맞춤형 대책 시급

줄여야 할 학교폭력 피해가 되레 증가를 보이고 있다. 1600여 명의 학생이 최근 1년 새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는 총 2930건으로 2022년 2330건, 2023년 2699건, 2024년 2365건, 지난해 2669건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총 1642명으로 전체 조사 참여 학생 4만7735명의 3.4%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피해응답률은 5년 연속 증가세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7.0%(1012명)로 중학생(2.5%, 424명), 고등학생(1.3%, 204명)보다 최대 5.7%p 높았다.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 추세

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5.8%), 사이버폭력(6.3%), 금품갈취(6.1%) 순이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교 밖 피해 장소는 사이버 공간과 공원, 놀이터, 학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유형과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특히 초등학생 중심으로 학교폭력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에 맞춘 예방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또 언어폭력 피해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바른 언어 사용 교육도 배가해야 한다.

태양광 보급, 서울시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에너지 비용 경감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가정형 태양광 보급에 나선다. 400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W 이내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 500W 기준 사업비 약 100만원 가운데 국·도비로 80만원을 지원하고 가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와 사후관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실패한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베란다 등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대대적으로 보급했다. 하지만 참여업체 폐업에 따른 사후관리 공백과 보조금 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중단됐다. 정책 목표가 타당하더라도 보급 실적에 치

중하고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남겼다.

제주도는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선 500W 설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20만원의 자부담을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참여기업 폐업 시 누가 사후관리를 책임질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강풍과 태풍이 잦은 제주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안전기준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제주가 가야 할 방향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 보급 확대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서울시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제성과 안전성,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제주형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성공하려면 시작부터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열린마당

풍성한 한가위, 전통시장 화재 예방 최우선



강 승 지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장을 보려는 이들로 붐비는 전통시장은 명절 특유의 정겹고 활기찬 기운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일 년 중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목재,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많다. 비좁은 골목길 구조 탓에 일단 불이 나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고,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행복하고 안전한 명절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시장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인과 방문객 모두의 자발적인 화재 예방 실천이 절실하다

첫째, 전기·가스 안전 점검의 생활화다. 문을 닫기 전 노후 전선과 콘센트의 먼지를 털어내고, 전열기구 과사용 등 과부하 방지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소화기 1대의 힘’을 기억하는 것이다. 점포마다 소화기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와 조작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셋째, 소방 통로 확보다. 상품이나 좌판이 통로를 막지 않도록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추석, 상인과 이용객 모두의 작은 주의와 노력이 더해져 정과 온정이 넘치는 안전한 전통시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뉴스-in

제대병원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간호사 늘려 환자 가정 방문

○…제주대학교병원이 전문인력을 확충해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 운영.

13일 병원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익숙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가정형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환자에게 필요한 개별화된 돌봄 계획을 수립해 관리.

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병원은 전문인력 확대에 나서며 이를 통해 앞으로 호스피스 관련 전문 교육과 자격을 갖춘 호스피스전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통증·증상관리, 투약·처치, 환자와 가족에 대한 간호상담, 임종 준비와 돌봄 교육 등 전문적인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서귀포안전보안관 활약 눈길

○…서귀포시안전보안관이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기간(11~16일) 경기장 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안전점검 순찰 활동을 실시하며 눈길.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들은 ▷보도블록 파손·침하 ▷불법 적치물로 인한 보행 방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하는 경사로 훼손 및 장애물 ▷안내표지판 훼손·부족 ▷경기 전후 선수단 집중 이동하는 시간대 안전보행 유도 ▷승하차 구역 혼잡 시 안전계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중.

김효석 서귀포시안전보안관 대표는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장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